

광양만 연안습지 법적보호종 서식지 특성

한해광* · 최상덕** · 안윤근** · 차인환***

*, *** 서남해환경센터, ** 전남대학교

Habitat Characteristics of Gwangyang Bay Coastal Wetlands Legal Protected Species

H.K. Han* · S.D. Cho** · U.K. Aan** · I.H. CHA***

*, *** West-South Sea Environmental Center, Yeosu Jangseong 2way 27, Korea

** Division of Marine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59626, Korea

핵심용어 : 광양만, 연안습지, 법적보호종, 서식지

Key Words : Gwangyangbay, Coastal Wetlands, Endangered Species, Habitat

1. 개요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연안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보호종(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총 7종이 넘는다. 이중에 전라남도 동부권과 경상남도 서부권에 위치한 광양만지역의 연안습지에는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 서식지는 분포가 넓지 않아 연안이 갑자기 변하면 바로 절멸하는 연안습지 깃대종들이다. 연안개발이 많아지면서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양만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보호종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변화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광양만 연안습지일대 법적보호종 5개 서식지에서 지난 3년간(2015-2017)조사한 4종의 결과에 기초하여 광양만 연안습지 일대 법적보호종인 생물들의 서식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환경센터에서 광양만연안 지역인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일대의 연안습지 5곳에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지점은 대부분 니질성 갯벌이 우세하게 형성되어 있으며(주 등, 2013), 사질, 자갈 등이 혼재했다. 이곳에는 법적 보호종인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흰발농게 *Uca lactea*, 대추귀고둥 *Ellobium chinense*,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과 등이 서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적보호종 생물의 서식지 특성을 지역별 현장조사를 통해 서식실태 위주로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갯게의 갑각은 원형으로 볼록하며 짧은 털로 덮여 있고, 가장자리의 눈구역 뒤로 3개의 넓은 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은 전반적으로 보라빛 색조를 띤다. 흰발농게는 갑각의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잿빛 바탕에 검푸른 무늬가 있고, 왕발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추귀고둥은 진유폐목 대추귀고둥과에 속하며, 패각형태는 긴 난형으로 나뉘는 원추형이고 나층은 7층이다. 각구는 체층의 가장자리 중간에 접한다. 성체의 크기는 각고 27mm, 각경 14mm 정도이다(주 등, 2013). 기수갈고둥은 패각의 높이와 폭이 비슷해 전체적으로 작고 둥글둥글하다.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갯게의 서식지는 발아래 갈대가 있는 곳, 흰발농게 서식지는 사질이 우세한 곳이다. 대추귀고둥의 서식지는 갈대가 무성한 곳이었다. 기수갈고둥의 경우는 기수역 자갈과 바위지역이었다. 이 중 갯게와 대추귀고둥 서식지는 바다쓰레기 등이 밀려와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 흰발농게의 경우 모래가 유실되면 바로 사라지거나 이동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수갈고둥은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4. 결론

연구지역 5곳에서 서식지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현장조사에서 갯게, 대추귀고둥은 니질이 우세한 기수역에, 흰발농게는 사질이 우세한 곳, 기수갈고둥은 물속 자갈이 있는 곳에 서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광양만연안의 법적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대책이 시급하며, 다른 법적보호종 등의 관리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